

제 3 강 철학과 수사학

◆ 1교시 고대인의 언어 논쟁

네, 오늘이 3주차죠? 우리가 첫 날 이야기 했던 것이 “철학의 언어. 언어의 철학”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왜 언어가 철학에서 문제가 되는지, 특히 20세기에 새로이 출현한 시니피앙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소쉬르에 의해 발견된 시니피앙이라는 개념이 무슨 의미였으며 이것이 어떻게 다른 사상 이론가들에 의해 다양한 의미로 쓰였는지도 보았는데.

그러면서 본래의 의미가 축소되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하면서, 다양한 학자에 의해 시니피앙이라는 용어에 보다 다양한 의미가 부여 됐다면, 그러니까 소쉬르가 말했던 그 내용과 다른 또 다른 내용을 담았다든가 창조적인 발전을 했었다면 문제가 달라졌을 텐데.

▲ 시니피앙-시니피에 개념의 ‘안타까운’ 전개

우리가 알고 보면, 소쉬르가 말하고자 했던 시니피앙의 내용은 말하자면 실체가 아닌 구체적인 대상이 아닌 이미지라는 것. 그러면서 구조로서의 변별성,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언가 ‘있는’ 긍정적인 대상이 아니라 네거티브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구조주의라고 하는 사고는 네거티브와 굉장히 많이 관련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닌 어떤 것, 만일 ‘A란 무엇인가’를 설명한다면 ‘A는 이것이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A는 최소한 무엇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런 네거티브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다’가 아니라 ‘무엇이 아니게 하는 어떤 것’.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틀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새로운 발견, 특히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대립관계는 기존의 어느 철학에서도 없었던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왜곡시키는데, 왜곡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기존의 개념에서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축소시켰어요. 과거에 이미 논의 돼 왔던 그런 내용들로 축소시킨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질료와 형상’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철학의 대립구도가 있잖아요. 질료가 우선이나, 형상이 우선이나 하는 대립들도 있었고. 근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추상적인 수(數)를 드느냐, 아니면 물, 공기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하느냐. 그런 대립.

전체적으로 보면 서구 철학의 가장 큰 줄기는 형상이 중심이 되어 설명하는 형상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소쉬르 이후의 시니피앙-시니피에 개념의 논지는 전통적으로 있어왔던 ‘질료와 형상’의 대립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소쉬르가 말했던 시니피앙-시니피에의 관계는, 기존에 이야기가 이미 돼 있었던 ‘질료와 형상’이라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내용들이 중복 돼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껏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를 끌어낸 그런 개념이었어요.

▲ 엘름슬레우와 언어학

그런데 소쉬르 이후의 학자들이 그것을 자기 분야에다 접목시키면서 다시 과거에 있어왔던 전통적인 논리들로 환원시키는 것밖에 안 되었어요. 반면에 제가 ‘엘름슬레우’라는 언어학자를 이야기했었는데. 엘름슬레우 같은 경우는 보통 linguistics라는 학문명을 쓰지 않고 자신의 언어학을 ‘글로세마티크glossematique’라는 말로 다시 명명했어요.

글로소glosso-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로, 영어로 한다면 tongue이라고 하죠. ‘혀 혹은 언어, 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티크-matique는 수학 mathematics 할 때의 그 ‘-matic’이에요. 말하자면, 구체적인 어떠한 내용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관계를 가지고 하는 추상적인 대수학, ‘언어에 대한 대수학’이라는 개념을 써서 만든 용어죠.

그래서 한국말로 ‘언리학(言理學)’이라고도 부르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엘름슬레우가 만들었던 언어학 이론 체계 안에서는 소쉬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외에는 별로 그렇지 못했었어요.

언어학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언어학자들마저도 소쉬르의 시니피앙-시니피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불행하게도 엘름슬레우의 언어학이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사이에서도 난해하다는 이유 때문에 쉽게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언어학이 못 됐었죠.

그러면서 오래 못가고 전수가 되지 못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소쉬르가 새로이 발견하고 엘름슬레우가 계승했던 그러한 의미에서의 시니피앙. 다시 말하면 소리가 아닌, 소리의 실체가 아닌 소리의 이마주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시니피앙.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반대의 짝인 시니피에에서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전개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니피앙과 소리의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실체가 아니라 실체를 담을 수 있는 틀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바로 전통적 의미에서의 질료와 형상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 소쉬르의 체스의 비유

다른 의미에서의 질료와 형상의 관계가 바로 새롭게 발견된 ‘시니피앙-시니피에’의 관계인

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서양어에서의, 특히 불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동사의 과거분사와 현재분사의 쌍,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의 관계죠?

무엇을 하는 것과 무엇을 당하는 것, 행하는 것과 행함을 당하는 것 사이에서의 관계.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기능을 가지고 설명해야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소쉬르가 개인적으로 장기를 좋아했다고 그러죠? 서양이니까 체스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래서 체스에서 예를 많이 들기도 했었어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체스에서의 말이 있잖아요. 체스 판 안에서 그 말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그 체스 말은 경기 규칙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동양 장기에서 차(車)나 상(象)이 있는 것처럼 체스에서도 비숍(Bishop)이나 나이트(Knight)와 같은 말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것과 기능이 무엇이 다르냐로 설명이 돼야지 그게 무엇으로 만들었느냐로 설명이 되어선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를 많이 들어요. 체스판의 말은 나무로 만들건 상아로 만들건 플라스틱으로 만들건 돌로 만들어도 상관없죠. 우리 꼬마들이 땅바닥에 판 그려서 놀이하는 것을 보면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게 돌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기능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에 그냥 기능을 부여하면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하면 그냥 그게 말인 것이고. 플라스틱이든 돌이든 상아든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니피앙이에요.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알파벳으로 'r'이라고 쓰는 그것은 프랑스어에서 혀 앞에서도 소리가 날 수 있고 목 뒤에서도 날 수 있어요.

음성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소리이지만 음운론적으로는 똑같은 소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은 추상적인 부분이지 실제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니피앙-시니피에의 관계에서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언어를 설명하는 데 많이 언급되었던 '소리-관념'사이의 관계에서 소리의 일부를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그 진짜 소리가 아니라 소리의 이미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이미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죠?

그렇다면 반대로 개념세계에서도 진짜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을 담아내는 틀, 추상적인 기능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시니피에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소쉬르의 <일반언어학강의>에서 찾아보면 명확하게 그러한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아까 말했던 엘름슬레우가 정확하게 짚어내고 새롭게 양쪽 균형을 맞추었다고 했었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니피에 쪽을 두 번째 강의시간에 말했었잖아

요. 시니피에라고 하는 것은 진짜 구체적 대상이 아니라, 소쉬르 이후의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시니피앙은 틀, 시니피에는 구체적 것’ 그게 아니라 시니피에도 ‘관념을 담아내는 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 시니피에의 세계

우리가 주로 언어철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이야기됐었던 실제 있는 세계, 관념이기 이전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시간에 얘기했던 대립 있잖아요. 존재가 먼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안다는 게 먼저 있는 것이냐. 혹은 존재하니까 아는 것이냐 아니면 알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냐. 이런 관계의 대립 말이죠.

그런 대립 관계가, 다시 말하면 시니피에라는 새로운 발견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각세계에서 볼 수 있는 대상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지각의 세계잖아요. 이것은 동물과 인간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어쩌면 동물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이런 지각세계에 있는 것들은 관념 이전의 단계죠. 관념까지 오지 않는 그러한 인지 단계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도 이런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 그 ‘인지한다’는 단계에서도 실제 존재하니까 우리가 인지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각 단계에서의 인지 말이죠. 아니면 인지하는 대상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인지. 이 논란도 꾸준히 계속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실어증을 대상으로 한 실험들을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어증이 아니죠. 실어증이 아니고 회랍어에서 gnose라는 말이 ‘인지, 지각’이라는 뜻인데 거기다 부정의 의미의 접두어 ‘a-’를 붙이면 ‘agnose’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실어증이 ‘aphasia’라면 ‘agnosia’는 언어가 안되는 게 아니라 지각이 안 되는 환자라는 거죠. 그런 환자들을 경우를 보면, ‘있기 때문에 지각하는가, 지각하기 때문에 있다고 믿는 것이냐’라는 이 차원에서 보면 말이죠.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재밌는 현상이, 우리가 보는 대상에 대하여 지각 이전에 감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눈이 있고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앞에 사물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감각적으로 내 눈에 들어와서 뇌까지 전달되는 과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지각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agnosia 환자의 경우에는 보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눈이 있고, 시력이 정상이고 빛이 있기 때문에 다 보이고 다 들려요. 그런데 지각이 안 되는 경우죠. agnosia 환자 앞에다가 포도주 병을 두고 이게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여요. 보이니까 나름대로 분석을 하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어가 생각 안 나는 게 아니라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길다는 게 보여요. 저게 긴 데, 뭘까. 파란색이 있구나, 그리고 부분적으

로 흰 색도 있네. 길고.. 혹시 파가 아닌가요? 환자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잖아요. 파가 길고, 흰색도 있고 파란 색도 있고. 그러니까 환자에겐 색깔도 보이고 형태도 보이고 고체라는 것도 보여요. 다 보이는데 이게 무엇인지 지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은 다 정상인데 지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자료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오브제로, 하나의 대상으로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물 자체, 칸트가 말했던 물자체라는 세계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진짜 존재하는 세계가 있겠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새롭게 발견해서 새 사실을 알아낼 수는 있지만 새롭게 알아낼수록 모르고 있는 게 더 많다는 것 또한 동시에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자체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내는 대상이 아니냐는 거죠. 감각을 가지고 지각해 내는 것도 그렇고, 지각된 대상들을 가지고서 그것이 다 말로 표현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관념화한다는 것. 관념화한다는 것은 언어화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한 시니피에라는 틀을 통해서 언어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시니피에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말도 필요 없고, 문법이에요.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기존에 규범문법에서 말했던 그런 문법이 아니고, 어떤 논리적인 틀이라는 의미에서의 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틀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관념세계.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을 통해 언어화한 관념세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심층이 먼저냐 표층이 먼저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의 세계가 먼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만들어진 게 의미냐’ 이런 논란 자체가 시니피에를 가운데 둔 변증법, 변증법은 지난 시간에 얘기 했었죠?

처음에 실제 있는 그런 것. 지각 돼 있는 그런 것. 우리가 지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언어도 없는 거죠. 지각을 하니까 이를 언어화하려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지각의 세계는 언어 이전의 세계잖아요. 지각의 세계는 이미 이전에 있는 것이에요. 이를 언어화한 결과물이 관념이라는 것, 관념의 세계라는 거죠.

▲ 관념의 변증법적 해석

그런 의미에서 지시체와 관념의 관계를 제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포물선으로 표현했었잖아요? 진짜 언어가 올라갔다 내려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수학에서 쓰는 그래프로 표현해 본 것인데.

정에 대한 반으로 간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 정과 반이었나요? 구체적 실체물을 가지고 이

야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빈껍데기를 얘기한다는 의미에서의 정과 반이었죠. 그런데 그게 빈껍데기로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채워 넣잖아요. 채워 넣는다는 의미에서 이를 관념화라고 했고.

그래서 채워진 관념이라는 것은 지시체와 될 수 있으면 가까이 가려하지만 결코 이 둘이 중복될 수 없다는 얘기도 했었죠. 우리가 아무리 언어화한다 해도, 작가나 시인 분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말을 만들어냈나 감탄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우리가 지각한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도록 관념을 가까이 끌어내리느냐, 그 문제인데.

사실 우리는 아무리 가까이 간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우리가 지각한 바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각된 대상이 더 정확한 정보인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니죠. 그건 너무 막연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것은 너무 막연하죠.

한 마디로 연속적인 것을 불연속화 시킨 것이 문화잖아요. 그게 언어이고. 수학도 그러한 것이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관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결국은 인식론적인 전제조건이 없다면 우리가 관념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선형적 주체’라고 하는 칸트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죠.

선형적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범주로서의 틀을 가지고 있단 얘기죠. 그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구체화한 것이 관념이라는 것이예요.

관념은 구체화되려고 하는 거죠? 지시체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서의 변증법적 관계, 그런 얘기들을 시니피에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 수사학과 관련한 세 가지 의미

그래서 오늘 또 새로이 소개해 드려야 할 내용이, 수사학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수사학과 철학 간의 논쟁은 사실 우리가 아는 것 보다 높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요.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모든 학문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개념 정리부터 확실히 해야죠.

제가 말한 수사학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그것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처음에 형이상학 논의 시작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수사학’이라고 할 때에는 뒤에 ‘학(學)’자를 붙이기 때문에, 언어를 얘기할 때 말했던 것처럼 ‘메타’라는 의미에서의 그 학(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수사도 말이고 학도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메타적 의미에서의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만일 그러하다면 수사학이라는 체계가 잡히는 시기가 있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나마 ‘수사학의 탄생, 발전, 쇠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메타적, 학문적 의미에서의 수사를 이야기한다면.

반면에 우리가 ‘수사학적으로’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때에 우리가 학(學)자를 뺀 ‘수사’라는 말과 동일시하여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심리학적으로’라는 말을 할 때,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심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라면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순간부터 이미 수사학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수사학에서의 학(學)이 무엇이나. science 이냐 아니면 기술 technique 이냐. 그것에 따라서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기술로서의 수사학을 배운다면, 말을 잘하게 된다는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애매함이 과거 수사학을 처음으로 잘 정립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뭐 물론 다른 모든 학문들도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체계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 전에는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 있었지만.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제로 수사학이라는 책도 남겼죠. 한국말로 그냥 ‘수사학’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 어로는 ‘테크네 레토리케 technē rhetorike’라는 제목이 붙어있어요. ‘테크네(technē)’라는 말은 지금도 영어의 ‘technique’으로 계승이 돼 있죠? 그 다음 ‘테크네’라는 말이 라틴어가 되면서 ‘아르테Arte’라는 말로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아르테’라는 말도 결국은 테크닉, 기술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현대 서양어로 가면, 예를 들어 영어를 놓고 얘기를 하자면 technique이라는 단어 외에 art라는 말로 따로 진화가 되었죠.

아르테는 라틴어에서 쓰이던 ‘기술’이라는 의미였는데 현대어에서는 ‘art’로, Fine art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이잖아요. artistic이라는 말이 ‘기술이 뛰어나다’는 의미로 쓰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연아 선수의 피겨 스케이팅의 artistic한 측면을 본다는 것은 기술을 본다는 게 아니라 esthetic한 면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두 단어가 따로 전개가 되어 왔는데. 어쨌든 ‘아르테’라는 말, 그리고 ‘테크네’라는 말. 이를 과거적 의미로서 ‘기술’의 의미로 쓴다면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제목이 ‘테크네 레토리케’예요. 다시 말하면 대화술, 수사적 기술을 얘기하는 말이죠. 이미 제목에 그렇게 나타나있죠.

그런데 수사가 기술이나 학문이나는 논란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대목이, 제목은 ‘테크네’라고 명시돼 있지만 그 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레토리케는 듀나미스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희랍어로 ‘듀나미스dunamis’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기술이라기보다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도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바꿀 수 있는 것을 뜻하고, ‘듀나미스’라는 것은 잠재돼 있는 능력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좀 배우면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외국어도 그런 것 아닌가요?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죠. 배우면 고쳐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에서의 인간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말을 하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현상은 우리가 배워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제가 허공에다 분필을 던지면 분명 떨어지죠? 백 번 던지면 백 번 다 떨어져요.

제가 분필을 훈련시킨다고 분필이 공중 부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의미에서 자연현상은 테크네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죠. 그래서 테크네는 전형적인 인간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책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수사가 테크닉이라면, 우리가 배워서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누구든 만일 ‘내가 수사 선생이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수사를 배우면,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그 안에 들어있는 ‘듀나미스’라는 표현을 생각하면, 수사는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제가 세 가지 얘기한 것 중에 두 번째의 의미가 되는 거죠?

▲ 수사학의 탄생

인간이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능력.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의 의미 안에서도, 서로 다른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그게 바로 수사학을 둘러싼 큰 논쟁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말이죠. 제가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의미로서의 수사학이 아닌, 첫 번째 의미 혹은 세 번째 의미, 다시 말하면 ‘메타로서의 학문’ 혹은 ‘기술’이라는 의미에서의 수사학을 본다면 ‘수사학의 출현’이라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수사학은 그리스 시대에 출현하게 됐는데. 그리스 시대 중에서도 과거인 소피스트들이 활동하던 시대와 맞떨어지는데. 모든 것의 중심이 그 과거에 비해 인간으로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치 제도화도 크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하냐면 절대 전제 군주가 다스리고 있는 사회에서는, 최근 20세기에서도 우리가 보

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 사회에서는 말이 필요 없는 사회예요. 하라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것이지 이러쿵저러쿵 말이 필요 하지 않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군주 정치를 표방하고, 혹은 적용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수사’, ‘말의 기술’과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모순인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시대에서 폭군 정치가 끝이 나고, 요즘 말로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지금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와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노예를 전제로 하고 자유시민들끼리만 말할 수 있던 것이니까 요즘 말하는 그런 민주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어쨌든 넓은 의미에서 애길 한다면 말이죠.

하나의 독재적인 발상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말과 생각이 존중되어야 하는 사회가 있다면, 그 여러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진리,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과거 그리스 시대를 놓고 얘기한다면, 전제 정치를 한다면 말이죠. 개인 소유의 재산 같은 것들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강제로 착취당할 수도 있고.

그 뒤에 민주사회가 되면, 내 재산을 다시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겠죠? 전에 뺏긴 내 재산을 되찾아야하는데. 문제는 정확하게 근거가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내 재산이 얼마나 어디까지 있는지도 모르고 가물가물한 기억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재산을 환수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내 재산을 기억 못하는데 누구라고 기억해주겠어요? 결국 판단을 하려면 인간으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죠. 말을 들어 봐야하죠. 이 사람 말 들어보고, 저 사람 말 들어보고. 두 말을 들어봤을 때 더 타당하고 설득력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 쪽으로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결국은 과거 그 당시 그리스에서 통하던 격언 같은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만일 당신이 아들이 신들과 함께 살길 원하면 철학을 가르쳐라. 당신 아들이 인간들과 함께 살길 원한다면 수사학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말이죠. 반면에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란 게 어디 있느냐, 이야기를 들어보고 더 타당한 데에 손을 들어줘야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언어, 그런 쪽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이 수사학자였어요.

문제는 일반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한 언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을 가르치는 직업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예요. ‘나에게 말을 배우면 이길 수 있다, 나에게 논리적 훈련을 받으면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만일

나의 아들이 나중에 정치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집안이면 수사학을 가르쳤겠죠.

아니면, 형편이 넉넉하면 말 잘하는 사람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나 대신 얘기를 해 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대신 얘기해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한 마디로 변호사죠. 그런 것들이 다 진리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를 이기게 해주면 되는 거죠.

▲ 코락스와 티시아스의 일화

그래서 수사학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흔히 언급하는 인물이, 물론 문서상 직접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 2차적인 문헌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코락스’와 제자인 ‘티시아스’ 이 두 사람 사이의 일화가 전해지는 게 있어요.

코락스가 얘기하죠. 나에게서 수사학을 배우면, 말하는 법을 배우면 어느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 어느 법정에서 소송이 걸려도 지지 않는다. 만약에 나에게 배우고 나서 소송에서 졌다면, 전액 환불한다.

요즘 말로 하면 파격적인 조건이죠. 그렇게 해서 티시아스가 배웠어요. 다 배운 다음에, 잘 배웠습니다, 선생님. 하고서는 수강료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코락스와 티시아스 사이에 소송이 붙었어요.

소송이 붙었어요 티시아스가 불리할 게 없는 것이, 만일 소송에서 이기면 돈을 안 내겠죠? 만약에 소송에서 지면, 당신 말대로 소송에서 졌으니 전액 환불을 해 줘야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 돈을 안내도 된다 이거죠. 말 되잖아요.

그런데 코락스 입장에서는 또 어떤가요? 소송에서 이기면, 돈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소송에서 자기가 지면, 티시아스가 이긴 것이니 돈을 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코락스 입장에서 봐도 말이 되고, 티시아스 입장에서든 말이 되고.

한 마디로 말해서 역설 같은 것인데 수사학의 기원을 얘기할 때에 많이 언급 되는 것이 이 둘 사이의 일화예요. 물론 코락스도 그렇고 티시아스도 그렇고 직접 그 사람들이 쓴 문헌들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2차적인 것을 통해서만 나와요.

▲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대립에서 수사학의 입지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을 보면, 수사학은 이제껏 철학에서 보았던 진리에 대한 갈망과는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가벼워 보이는, 말장난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수사학자들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도 있어요. 그 당시 수사학자들이 썼던 많은 문헌들

은 지금 남아 있지가 않아요. 라이벌이었던 철학, 다시 말하면 플라톤이죠? 그 플라톤에 의해서 언급된 수사학자들의 자료들만 남아있어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수사학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으로 고르기아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고르기아스는 원래 그리스 출신이 아니라 다른 지방 출신이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한다면 ‘대사’같은 자격으로 그리스에 넘어와 정착을 한 케이스같아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동시대 인물인 것 같죠.

플라톤이 대화록을 쓰면서, 대화록은 한 마디로 연극 대본이잖아요. <고르기아스>라는 제목으로 수사학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고르기아스와 소크라테스 사이에서의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르기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말로 해선 안 될 것이 없다, 모든 것은 말로 이길 수 있다, 내가 말하면 그것이 곧 진리가 된다.’라는 식의 논리는 전개해요.

그것에 대해서 소크라테스의 논리는 이런 거였죠. ‘당신이 말을 해서 모든 것이 진리로 이끌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라는 것이 뭐냐. 도대체 무엇의, 어느 분야의 전문가인 것이냐? 만일 지금 전쟁이 났다면,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군사적 전문가이지 내가 수사학자에게 달려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조선 전문가에게 가서 조언을 구해야지 수사학자에게 가서 조언을 구할까? 또, 내가 배가 아픈데 의사에게 가지 수사학자에게로 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있는데, 수사학 당신네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수사학이 기술이라면, 그것은 진짜 기술이 아니라 껍데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요리라는 것은 실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화장이라고 한다면, ‘속지 말자 화장발!’이라는 말도 있듯이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그렇게 보이도록 위장한 것이지 전혀 건강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껍데기만 위장하는 것이지 진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연히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말에 비중을 두고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묘사되는 고르기아스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도 소크라테스에게 많이 무너지죠. 그런데 플라톤이 다른 데서 언급하는 고르기아스라는 인물은, 당대 최고의 연변선생으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 플라톤의 저작 <고르기아스>에 나오는 고르기아스와 실제 고르기아스라는 인물 사이에서의 괴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플라톤에 의해 묘사된 고르기아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톤의 다른 저작에서는 굉장한 언변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눌한 논리는 전개했을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고르기아스의 저작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단편 조금 남아있을까.

▲ 그리스의 제자백가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절대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소피스트 사이의, 물론 소피스트와 수사학자가 완전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소피스트'라는 말 자체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소피스트'를 한국어로 '궤변론자'라고 번역하는데, 말 그대로 번역한다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뜻이죠. '소피아'가 지혜니까. 그런데 그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 그리스에서 군주들이 어떤 형태로서든 정치를 해야 하는데 무엇이 좋을까에 대한 조언을 주던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중국에서 제자백가들이 군주들에게 설득하는 것이나 군주들이 제자백가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분야에서의 학자들이 이런 저런 조언을 하죠. 그 중에는 철학도 있었고, 수사학도 있었고.

아니면 '건강이 좋아야한다'하여 요즘 말로 하면 체육선생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경쟁을 하는 거죠. 당시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소피스트'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당시의 수사학자들이 소피스트였고, 플라톤, 소크라테스도 소피스트였던 거죠. 그런데 다 소피스트가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자기가 소피스트가 아니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얘기를 해야 하니까. 지식인이 소피스트이고, 그 지식인과 나는 다르다고 구별 지으려면 '나는 소피스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자기는 소피스트가 아니고 플라톤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다 소피스트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수사학자였던 '이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도 본인은 소피스트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소피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피스트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리스에서 하나의 특출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대표할 수 있는, 그 다양한 지혜를 가진 지식인을 부르는 말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안에는 절대주의, 요즘 말로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표방한 사람도 있었고, 상대주의를

표방한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플라톤에 의해서 완전히 상대주의가 완전히 K.O패를 당하죠.

그 뒤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사학자들의 문헌도 잘 남아있지 않고, 플라톤의 문헌은 그대로 잘 보존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두 개를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긴 어려워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사이에서의 대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실제 인물로서의 고르기아스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아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제가 얘기 드렸을 거예요. 변증론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플라톤은 ‘절대로 나아가는 길’로서 변증론을 썼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강등시켰다고 했었죠? ‘절대로 나아가는 길’은 ‘디알리티케 dialektikē’가 아니라 한국말로 ‘분석론’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날리티카Analytica’에 가깝고, ‘디알리티케’는 ‘그럴 듯한 논리’를 부른다고 말했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다른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수사학 분야도 정의를 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나오진 않았겠죠. 기존에 있었던 다양한 수사학적 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종합해서, 큰 틀로 보면 플라톤 철학 안에서요? 약간 반대로 가는 경향도 있긴 했지만, 그 안에서 수사학을 정리한 거죠.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안에서 수사학의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또 우리가 얘기를 해 봐야겠죠. 잠깐 휴식을 취하고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